

‘당신의 말하기, 바뀔수 있다’...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발성·발음·말투 등 말하기 방법 콘텐츠로
“말하는 방법 외 자신감 심는 것도 중요”
“학창시절 ‘발표 올림증’도...호흡 잘해야”
“발음 코칭 앱 만들고 싶어, 소설가는 꿈”

기자·아나운서·쇼호스트를 거쳐 현재 스피치 강사이자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흥버튼(정흥수)’. 지난 2019년 스피치 강사로 뛰어들 그는 같은 건물에 있던 틱톡 관계자와 우연한 만나 같은 해 5월 크리에이터에 도전하게 됐다.

현재 틱톡 흥버튼 채널(팔로워 11만7900여명)을 운영 중인 정흥수씨는 틱톡과 유튜브·인스타그램에서 발성·발음·어조 등 ‘잘 말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틱톡코리아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말하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을 보고 오시는 (스피치 강의) 수강생 분들이 굉장히 많다. ‘달고 싶다’, ‘멋지다’라는 말들을 해주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바뀔 수 있나”라고 물으시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다들 말씀을 잘하신다”라며 “그런데 말할 기회가 많이 없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말을 못 하게 되는 게 더 크다. 수업 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더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다.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라며 “말하기 수업을 배우러 왔다가 인생을 깨닫는다” 이런 말들을 하신다”고 언급했다.

과거 빅스비·시리처럼 ‘인공지능(AI) 음성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만큼 정련된 정씨 역시 소신적에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발표를 꺼리던지 남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어려워했다고 한다.

그는 “대학생 때까지도 발표를 피하거나, 시키면 그냥 짧게 하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발표 올림증이 있는 사람이었다. 고맙다는 한마디도 잘 못했다”며 “(반년) 좁은 잘 왔다. 장기자랑에 나가 무대에 서서 주목받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그 대비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고, 아나운서라는 꿈을 처음 꾸게 됐다고 한다.

정씨는 “방송은 카메라를 보고 하니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또 다르더라”라며 “강연가들을 계속 보다가 보니 공통점이 있더라. 발표가 아닌 대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얼마나 해야 말을 잘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물어보신다. ‘운동 몇 개월 하면 몸 좋아지냐’와 똑같다”라며 “평생 말을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 저도 계속 말을 잘하게 되더라”라고 했다.

윗입술 열기, 올바른 혀의 위치, 전달력 높이는 자신감 있는 말투, 복식호흡, 헛갈리는 어휘 등 정씨는 갖가지 말하기 방법을 콘텐츠로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표·면접 올림증’에 대한 해결책도 내놔다.

정씨는 “긴장을 하는 이유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거다. 심호흡을 하지 않으면 과호흡이 돼서 심장이 더 빨라진다”며 “(앞선 세바시 강연회 녹화 당시) 저는 완전히 긴장한 상태였다.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을 정도로 손이 떨렸는데 사람들이 모르더라. 그 이유는 복식호흡을 잘해서다, 그걸 하면 감출 수 있다”고 했다.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강의에 다녀서는 그는 ‘비교적 짧은 말로 핵심 전달



하기와 같은 대화·발표 방법 외에도, 올바른 글쓰기나 자세 같은 부분도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 이후 강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신입 사원 등 실무진까지 교육 대상이 늘어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모든 사람이 발음을 잘하게 만드는 앱 개발을 향후 목표로 꼽았다.

정씨는 “제가 코칭을 안 해도 앱으로 누구나 발음이 좋아지게 만들고 싶다. 성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어 교사, 국립국어원 관계자도 제 수강생이다. 이론은 다 아는데 혀를 어디에 댄지 하는지, (위치가) 바뀌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국어사전을 보면 단어의 뜻을 누구나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처럼 누구나 발음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그 이후에 저는 사람의 장점을 끄집어내는 역할 그런 걸 더 많이 하고 싶다. (또한) 제 궁극적인 목표는 소설가”라고 웃어 보였다.

끝으로 정씨는 “말 잘하는 것을 비단 발표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음식 주문이나 병원 진료 등 일상의 모든 말들이 다 통용되는 것”이라며 “그리고 (나아가) ‘다정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 세상이 따뜻해질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에이티즈 동생그룹 싸이커스, 데뷔 2주만에 美 빌보드200 진입

데뷔 음반인 미니 1집 ‘하우스 오브 트리키 : 도어벨 링잉’으로 75위



그들 ‘에이티즈(ATEEZ)’의 동생 그룹으로 알려진 신인 보이그룹 ‘싸이커스(Xikers)’가 데뷔 2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진입했다.

10일(현지시간) 빌보드 소셜 미디어에 따르면, 싸이커스가 지난달 30일 발매한 미니 1집 ‘하우스 오브 트리키 : 도어벨 링잉’(HOUSE OF TRICKY : Doorbell Ringing)이 15일 자 ‘빌보드 200’에 75위로 첫 진입했다.

가요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구성원으로

꾸러진 K팝 보이그룹의 데뷔 앨범이 ‘빌보드 200’에서 기록한 성적 중 최고 순위다.

K팝 팀 중 데뷔 앨범으로 ‘빌보드 200’에서 최고 성적을 낸 그룹은 SM엔터테인먼트 어벤저스 ‘슈퍼엠(Super M)’이다. 2019년 셸프타이를 앨범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팀은 기존에 데뷔한 그룹 멤버들이 뭉친 것이었다.

싸이커스는 보이그룹 역사상 데뷔앨범이 ‘빌보드 200’에 진입한 하까지 걸린 시간 또한 슈퍼엠의 뒤를 이었다.

싸이커스는 데뷔 직후 흥행 조짐을 보였다. 더블 타이틀곡 ‘도깨비집(TRICKY HOUSE)’과 ‘록스타(ROCKSTAR)’를 내세운 ‘하우스 오브 트리키 : 도어벨 링잉’은 초동 10만 장을 돌파하며 역대 보이그룹의 데뷔 앨범 초동 성적 중 5위를 기록했다.

싸이커스의 이 같은 성적은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선배그룹의 역할이 컸다. ‘빌보드 200’에서 3위 성적을 쓴 에이티즈 동생그룹이라는 수식으로 데뷔 전부터 주목 받았다.

김규욱 대표가 이끄는 에이티즈 소속사 KQ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개발·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연습생 그룹 ‘케이큐 펠라즈 2(KQ Fellaz 2)’를 거친 팀이다. 케이큐 펠라즈 1기가 에이티즈다. 싸이커스는 ‘해적왕’ 콘셉트의 에이티즈의 콘셉트도 잇는다. 팀명에 표표를 상징하는 단어 ‘x’와 여행자라는 의미의 ‘하이커(hiker)’를 조합해 ‘표표를 찾아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는 소년들’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아울러 싸이커스 멤버들은 5년 전 에이티즈가 데뷔했을 때보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시스템에서 실력을 쌓아올 수 있었다. 에이티즈 멤버 우영은 최근 간담회에서 “(싸이커스 멤버들이) 저희와 회사가 가꿔 놓은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는 걸 보면 성취감도 들고 뿌듯함도 있다”고 반기워했다. 에이티즈 다른 멤버 성화도 “저희 데뷔 전에 미국에서 한 달 간 현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좋은 결과를 내 싸이커스 멤버들도 이번에 다녀왔어요.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후배들 잘 봐주세요”라고 칭하기도 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다”...현미, 두 아들 거주 중인 美서 잠들 예정

이자연 대안가수협회장 조사 맡아

원로가수 고(故) 현미(1938~2023)가 영면에 들어갔다.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현미의 영결식과 발인식이 엄수됐다.

흐린 날씨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된 영결식 사회는 코미디언 이용식이 됐다. 그는 “많은 분들이 현미 선배님의 90세 출수연, 100세 상수연을 기대했지만 안타깝게 됐다”고 애도했다.

이자연 대안가수협회장이 조사를 맡았다. 이 회장은 “수십년간 불러온 노래처럼 ‘떠날 때는 말없이’ 그렇게 한 마디 말씀도 없이 떠나가셨습니까. 파위풀한 가창력·뜨거운 열정은 세월이 흘러도 굳건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큰 별이 돼 영원히 빛나는 별

이 되시고 남은 열정과 못다한 꿈은 하늘나라에서 꼭 이루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상민 대안가수협회 이사과 가수 알리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박상민은 “내스타이자 달고 싶은 선배님”이라고, 알리는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공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왔다”고 애도했다.

현미의 대표곡 ‘떠날 때는 말없이’가 조가(弔歌)로 울려 퍼졌다. 1964년 개봉한 신성일-김영란 주연의 영화 ‘떠날 때는 말없이’(감독 김기탁) 주제곡으로 크게 히트했다. 원곡에선 현미의 애절한 목소리, 애수가 깃든 이봉조의 색소폰 소리로 심금을 울렸다.

조가가 영결식장을 채운 이후 가수 노사연·배우 한상진 등 유가족 분향·헌화, 장례위원장인 가수 서수남과 협회 이사진 등의 헌화가 이어졌다. 이후 서울주모공원에서 화장한다. 유



해는 두 아들이 거주 중인 미국으로 옮겨진다. 현미는 그곳에서 영면에 든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세상을 떠났다.

정훈희, 하춘화, 설운도, 김흥국, 자니 리 등이 빈소를 찾았고 수많은 이들이 메시지 등을 남겨 추모했다.

‘귀를 기울이면’ 최종 포스터 공개...19일 개봉



영화 ‘귀를 기울이면’의 최종 포스터가 공개

됐다. 공개된 파이널 포스터에는 ‘시즈쿠(세이노나나 분)’와 ‘세이지(마츠자카 토리 분)’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시즈쿠’와 ‘세이지’는 각자의 꿈을 위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잠시 이별한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것. 떨어져 있던 시간과 물리적인 거리가 무색할 만큼 행복한 얼굴의 ‘시즈쿠’와 ‘세이지’의 모습은 ‘10년 째 첫사랑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카피로 어우러져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가늠케 한다.

19일 개봉되는 ‘귀를 기울이면’은 동명의 지브리 애니메이션 원작을 실사화한 영화다. 중학생 시절, 서로 꿈을 이루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시즈쿠’와 ‘세이지’가 10년 후 일본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첫사랑 감성 로맨스다.

영화 ‘문재인입니다’ 다음달 극장 개봉

전주국제영화제서 첫 선...문재인의 이야기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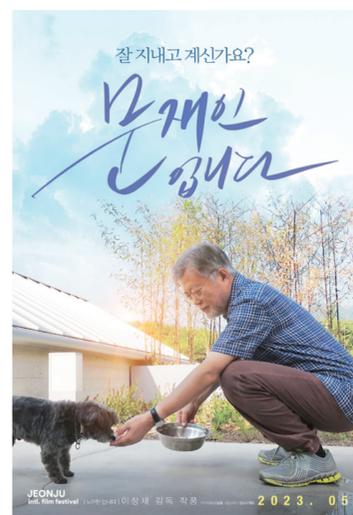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오는 5월 극장 개봉을 확정하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11일 배급사 엠프로젝트에 따르면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한 단어로 정의하지 못한 사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사람 문재인을 이야기를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다.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사이에서’ ‘목숨’ ‘노무현입니다’ 등 휴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이창재 감독이 대통령 퇴임 이후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문재인을 만나 탐구하고 이해하려 노력한 끝에 약 2년의 제작 과정을 거쳤다.

개봉 소식과 함께 공개된 예고편에는 퇴임 후 최초로 공개되는 평산마을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담겼다. 또 변호사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령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을 곁에서 함께한 이들의 특별한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좀 더 깊이 조명한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인터뷰도 더해졌다.

‘문재인입니다’는 개봉에 앞서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된다. 29일 오후 7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



관 JBC에서는 상영에 앞서 이창재 감독의 무대 인사가 진행되며, 30일 오후 5시 CGV 전주교 사점에서의 상영 후에는 이창재 감독의 관객과의 대화(GV)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뉴스